신재생 국내이슈

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 발표

◆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을 담은 「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」을 발표('24.5.16.)

□ 추진 배경

- ㅇ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, 에너지안보의 핵심 수단으로 재생에너지가 확대
 - 기후 위기 및 에너지 안보 문제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국제적 요구가 확산
 - *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(COP-28, '23.12) 계기 "재생에너지 설비 3배 확대 선언", RE100 등
 - 주요국의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태양광·육상풍력 중심으로 발전단가* 하락
 - * 균등화발전비용(LCOE, USD/Mwh): 태양광 '10450 → '2250 (89%↓), 육상풍력 '10105 → '2235 (67%↓)
 - 자국의 재생에너지 기술 지배력 확대 및 산업육성을 위한 강력한 정책 추진
- ㅇ 한국도 온실가스 감축목표(NDC)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본격적인 확산 필요
 - 국가 NDC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중점^{*}을 두었으나 전력계통 부담, 설비 난립, 높은 비용 등으로 한계가 존재
 - * ('17) 재생에너지 7.1GW (太 3.7GW, 風 1.1GW) → ('23) 재생 30GW (太 23.9GW, 風 2.1GW)

□ 정책 방향

- ① 건강한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조성
- o (정부주도 보급) 정부 주도의 계획적인 해상풍력 보급 추진
 - 조속한 「해상풍력특별법」(국회 논의중) 제정으로 계획입지제도 법제화
 - 법 제정 전 준계획입지인 집적화단지 제도 활성화로 공공성 강화
- o (공급망 강화) 해상풍력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공급망 경쟁력 강화
 - 공급망 강화를 중심으로 경쟁입찰시장 운영·평가 개선
 - 보급 확대에 대비한 항만 · 선박 등 설치 인프라 구축 지원
 - 자금 조달 원활화를 위한 펀드 등 추가지원 방안 발굴
- o (안정적 운영) 안정적인 해상풍력 단지 운영을 위한 기반 조성
 - 해상풍력 안보이슈, 신시장에 대비한 운영·관리체계 고도화
 - 안정적 운영, 고장 시 신속 복구를 위한 운영·관리 역량 확보

② 질서있는 태양광 확산

- ㅇ (우수입지 발굴) 입지별 전략적 보급, 제도개선 통한 수용성 확보
 - 주민·계통 수용성이 양호한 산단태양광 활성화 추진
 - 「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('24.4, 농식품부)」 후속조치 추진
 - 제로에너지건축물(ZEB) 의무화 연계 BIPV 활성화 기반 마련
 - 이격거리 규제(지자체) 등 합리적 개선, 중대형 확산의 제도기반 구축
- o (계통부담 완화) 전력망 여건을 고려한 질서 있는 설비 진입 추진
 - 계통여유지역으로 태양광 신규설비의 진입수요 유도
 - '유연한 접속'의 원칙 하에 계통이용의 효율성 극대화
 - 미활용설비 집계·관리 및 태양광-ESS 연계 지원
- o (공급망 강화) 산업생태계 복원 및 미래시장 대비한 핵심기술 확보
 - RPS, 경쟁입찰 등 제도 개편을 통한 태양광 산업생태계 복원
 - '26년 텐덤셀 상용화, '30년 효율 35% 달성으로 경쟁력 확보
 -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대응 및 안보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

③ 새로운 시장에 맞는 제도 개편

- o (의무시장) 정부 주도의 체계적 보급을 위한 RPS 제도 개편
 - 정부의 신규설비 보급 목표량에 대해 매년 에너지원별로 입찰 추진
- (자발적 시장) PPA 활성화(RE100 등)를 다각도로 지원, 시장 조성 추진
 - 제도개선을 통한 PPA 거래 활성화, 재생에너지 공급확대
 - 금융·인센티브 등 자발적 재생에너지 민간 투자에 대한 지원 강화
 - $-^{(초기)}$ 공공-민간 협업 \top PPA 중개시장 $\rightarrow^{(장기)}$ 민간주도 시장으로 전환

④ 해외 시장 진출 지원

- o (체계) 「재생e 해외진출 협의회」(가칭) 구성·운영 원스톱 지원
- o (사업발굴) 정부 간 G2G 협력을 활용하여 Top-Down식 대규모 사업 발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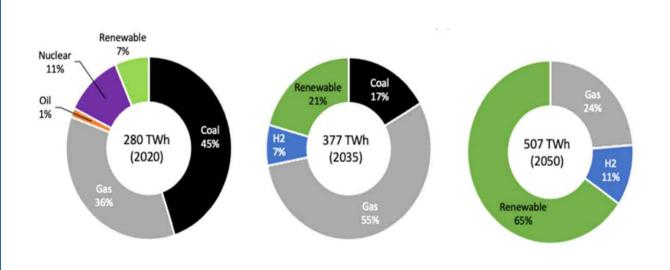
신재생 해외이슈

대만, 2050 탄소중립 로드맵 제시

◈ 대만의 에너지전환, 탄소중립 목표 아래 해상풍력 발전산업 육성에 집중

□ 2050 탄소중립 로드맵

< 연도별 탄소중립 로드맵 >



- ※ 출처: 대만의 탈탄소화 로드맵과 에너지 정책 시사점(MDPI, 2022. 7. 9.)
- (로드맵) '2050 탄소중립 로드맵 및 전략'('22.03)을 발표하였고, 탄소중립을
 위해 '30년까지 8,837억 NTD(한화 약 37조원)투입 계획
- **(국회통과)** '23년 1월 '기후변화 대응법'이 대만 입법원(국회)을 통과하여 대만형 2050 탄소중립 법적 토대 완성
- (보급목표) '23년 말까지 약 2.25GW의 해상풍력이 설치되었으며, 매년 규모를 확대하여 '50년 기준 누적용량 40~55GW 도달 목표
 - '25년까지 풍력발전 설비용량을 6.9GW(육상:해상=1.2:5.7)까지 확대하고, 발전량 규모는 23,500GWh까지 확대 목표
 - '35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21%를, '50년까지는 65%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확대하는 목표이며, 해상풍력 개발에 집중하는 추세
 - * 해상풍력 개발 범위도 심해지역으로 확대 추진하며, 부유식 발전설비 시범사업을 동시 추진 예정

□ 대만 2050 탄소중립 재생e 부분 목표 및 전략

구분	달성 목표	이행 전략
해상풍력	13.1GW('30) → 40~55GW('50)	 정책 주도로 시장 수요 견인 핵심부품·마린엔니지어링 자급화 역량 강화 부유식 풍력발전 기술 발전 스마트기술 기반 O&M 비용절감 스마트기술 기반 O&M 안정성 제고 내국인 기술 인력 양성
태양광	31GW('30) → 40~80GW('50)	 설치공간 확보 시스템 안전·신뢰성 향상 전력망의 계통연계 원활화 고효율 제품 개발·사용
수소	891MW('30) → 7.3~9.5GW('50)	 수소 공급 안정성 확보 수소 수입 관련 대외 협력 추진 수소환원 제철 기술 개발 수소 운송·저장 관련 인프라 구축
지열발전	192MW('30) → 3~6.2GW('50)	 발전차액지원제도 지자체·개발업체 보조금 지원 재생에너지발전조례'개정으로 지열발전육성에 관한 조항 신설

※ 출처 : 2050 탄소중립(대만 국가발전위원회, 2023. 2. 16.)

o (바이오) '22년 바이오 발전량은 32.7TWh로 전년 대비 11% 감소하였으며, 발전 비중 또한 24.2%로 6% 감소

□ 신재생에너지 정책

- (태양광) 현재 설치된 태양광 규모는 14GW이며, '35년까지 태양광 발전 용량이 70GW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가정·상업용 건물에 대한 설치 기준 마련 및 다양한 산업 분야 활용 방안 연구 지원 예정
 - * 가정집, 창고 등의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보급하는 것을 최우선 추진
- o (국산화율) '26년부터 개발하는 해상풍력 단지에는 핵심 항목(5개 분야 25개 핵심 항목)의 국산화 비율 규정(60%) 적용 및 국산화 추진 애로 항목(기어박스, 해저케이블 등)은 국산화 이행 계획에 따라 가산점 부여
 - * 핵심 항목에 포함되는 A 품목 100개를 사용하는 단지의 경우, 국산화 비율 하한선(60%)에 해당하는 60개는 국내에서 생산, 잔여 40개에 대해서는 국내 생산 비율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여 자격 심사

<출처>

1. 신재생에너지 부문

- ㅇ 국내이슈 <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 발표>
 - 재생에너지 질서있는 확대, 정부가 이끌고 나간다(산업통상자원부, 2024. 5. 16.)
 -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(산업통상자원부, 2024. 5. 16.)
- ㅇ 해외이슈 <대만, 2050 탄소중립 로드맵 제시>
 - A Decarbonization Roadmap for Taiwan and Its Energy(MDPI, 2022. 7. 9.)
 - Energy transition in Taiwan(Energypedia, 2024. 2. 9.)
 - 2022년 대만 풍력 발전 사업 정보(KOTRA, 2022. 3. 15.)